

새로운 관계성의 구축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조진만

조진만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51
용도	도서관
대지면적	1200m ²
건축면적	693.94m ²
연면적	1,982m ²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높이	13.25m
건폐율	57.83%
용적률	139.6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설계	터구조
설계	조진만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윤혜원, 이민기, 류호길
시공	대극종합건설
조경설계	랜드큐브
설계기간	2015. 11. ~ 2016. 8.
시공기간	2016. 9. ~ 2018. 5.
건축주	은평구



하늘에서 바라본 내술도서관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은
대부분의 건축 볼륨이 산자락의 일부로 지형 속에 구성된다.
산책로와 사이사이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노출되는 볼륨을
숲의 일부가 도시로 돌출하듯 배치해
건축은 비단산에서 도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비단산에서 도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축



©신정현



©신정현



©신정현



©신정현

상 비단산 근린공원 초입에 위치한 내숲도서관
 중 지형을 본따 설계된 삼각형 매스
 하 산책로로 이어지는 도서관 입구



©서경진



©서경진



©서경진

상 내송도서관의 2층 부출입구
하·좌 어디서든 숲으로 연결되는 동선
하·우 자연의 녹색을 담기 위한 건축재료



외부의 지형에 만들어진 내부 계단식 공간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공원을 산책하다,
 하룻길에 언제라도 가볍게 들러 이웃들과 만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사랑방이자 장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이다.



© 신경서

건축을 한다는 것: 새롭게 짓는 것

우리는 예부터 집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짓는다’고 한다. 집 말고 우리가 ‘짓는’ 것에는 밥, 농사, 시, 이름 등이 있다. 이들을 짓는다고 표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똑딱똑딱 이것저것 맞춰 보통은 되풀이해서 ‘만드는’ 것과 달리 ‘짓는’ 것들은 어떤 창조 행위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이루는 바탕이 되도록 새롭게 일으키는 중요한 몸짓이 된다. 건축설계는 항상 새로운 땅과 그곳에 생활하게 될 새로운 사람들과 그들의 새로운 꿈을 잇는 작업이다. 매번 낯선 것들과 조우한다. 당연히 새로 짓는 집은 새로워야 하는데, 우리 도시에는 낡은 정신으로 짓는 집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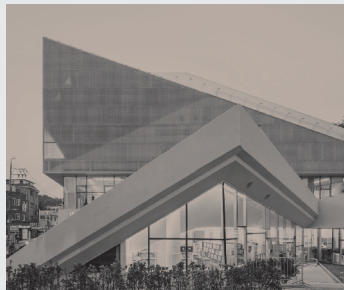
건축은 도시 속에서 극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내포해야 한다. 기능성과 유지 관리의 편의에 기대어 기준에 검증된 타이포로지를 조합한 설계는 지루하다. 이를 가리기 위한 디테일의 집착을 미니멀리즘적 미학 내지는 절제된 건축으로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매번 다른 제약 조건과 대지가 가진 잠재적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출발해 공간 조직, 구조, 형태, 재료 등 건축을 구성하는 여러 차원에서 미지의 끝자락까지 끌고 나가는 것. 나에게 있어 건축은 항상 상반되는 가치들의 양극을 오가며 고민하고 방황한 끝에 나타난다. 수많은 모형과 스케치들은 안과 밖, 과거와 현재, 부분과 전체, 단순성과 복잡성, 역사와 현재, 추상과 구현 사이를 오가며 한 획 한 획 자리를 잡아가고 그 과정에서 진폭이 크면 클수록 프로젝트 결과물 또한 역동적으로 완성된다.

숲과 도서관, 사람과 지식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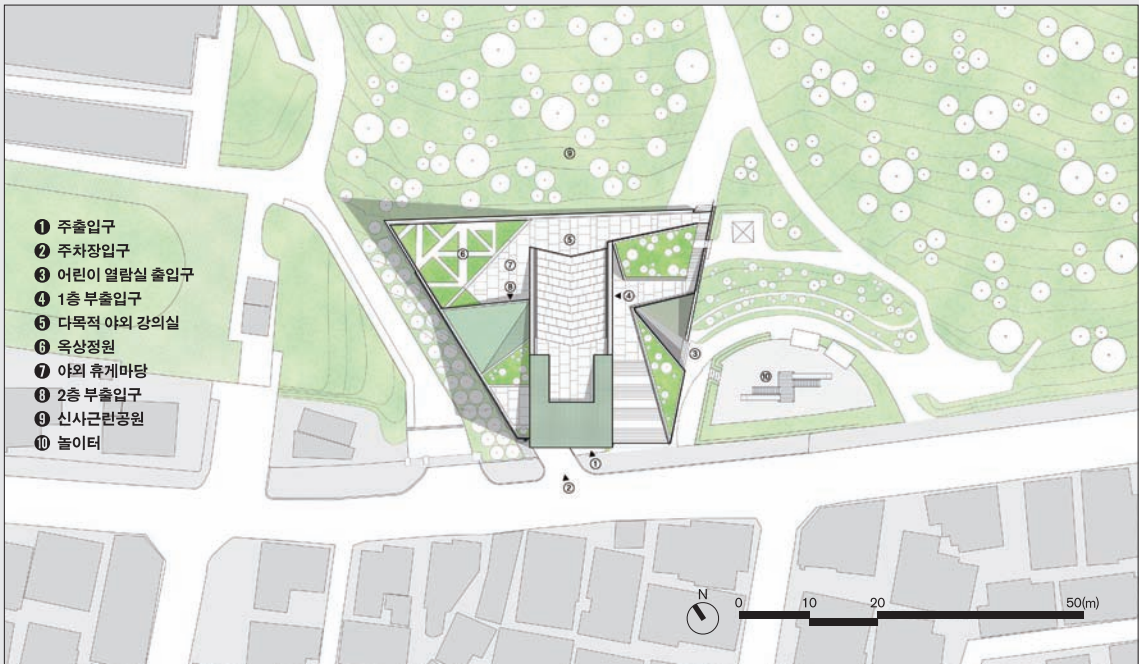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이하 내숲도서관)은 은평구 신사동 비단산 근린공원 초입에 위치하며 주변에 여섯 개의 학교와 주거지를 접한 곳이다. 부지 전면에도 도로, 후면에 비단산, 좌우 양측으로 초등학교와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약 9m 고저 차이를 가진 대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산책로와 놀이터, 다목적 야외 쉼터로 잘 사용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오픈 스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서관의 교육·문화 프로그램들이 주변의 자연과 보다 긴밀히 관계 짓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간 가로에서 단절되었던 공원 진입을 도서관 야외 계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숲 속 기존 편의시설들을 도서관의 부속 공간들과 연계하여 재구성하였다. 가로·놀이터·숲이 모든 방향에서 경계 없이 연결되고, 내부 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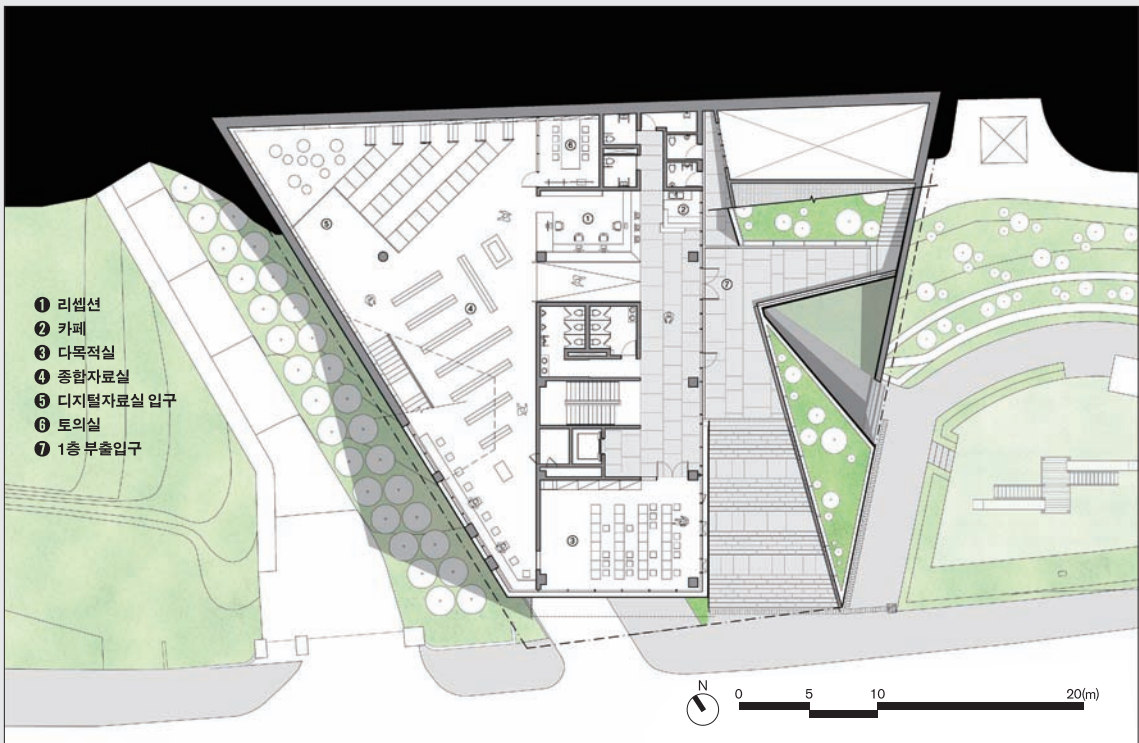
©서경석



상 하늘에서 바라본 내숲도서관
중 비단산 근린공원 초입에 위치한 내숲도서관
하 지형을 본따 설계된 삼각형 매스



내셔널모던미술관 배치도



내셔널모던미술관 1층 평면도

램이 자연스레 공원 속으로 확장되는 개념을 구상했다. 도서관을 매개로 도시와 숲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건축 볼륨이 산자락의 일부로 지형 속에 구성된다. 산책로와 사이사이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노출되는 볼륨을 숲의 일부가 도시로 돌출하듯 배치해 건축은 비단산에서 도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메인 홀이 없으며 공원의 각기 다른 레벨에 맞추어 모두 여섯 개의 출입구를 가진다. 어느 레벨에서도 입구를 마주치게 되며 이를 열면 입체적으로 펼쳐진 지식의 공간을 바로 마주 대한다. 반대로 어디에서 나와도 동선이 숲으로 연결된다. 내숲도서관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공원을 산책하다, 하룻길에 언제라도 가볍게 둘러 이웃들과 만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사랑방이자 장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이다.

자연스럽고도 극적인 경험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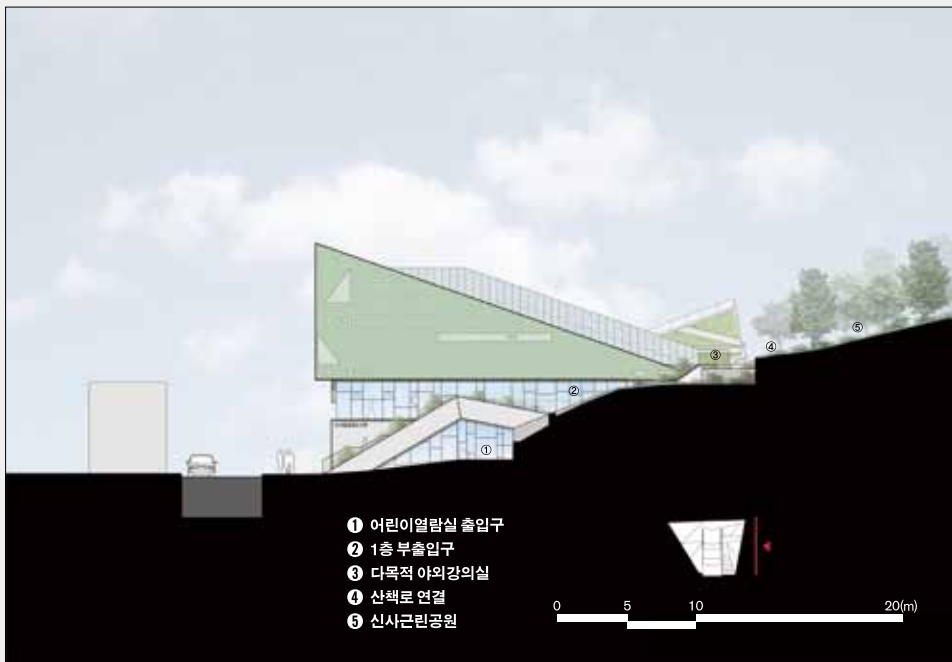
내숲도서관은 랜드스케이프의 건축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볼륨 형성에 있어 대조적인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 도시에 대해서는 건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경사지에 대해서는 지형을 닮으면서 사라지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런 전략에 따라서 삼각형 매스가 만들어지며 지형을 닮은 판들에 의해서 공간이 구성되고, 판들 사이에 동선과 출입구를 두어 지형과 건물을 연결한다. 도시에서 접근할 때 이 건물은 웅장해 보인다. 매스 옆의 넓은 계단을 따라 걸으면 공원과 산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기울어진 판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을 닮은 공간을 만날 수 있다.

건물 매스의 경사는 역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인공 지형과 자연 지형으로 구성된 일종의 분지를 형성한다. 건물의 기울어진 판들은 내부 공간과 연관된다. 외부의 경사는 내부 공간에서 다양한 높이를 만들어 내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계단식 공간으로도 출된다. 서로 다른 레벨에서 이 건물의 내부로 접근할 수 있고, 내부는 지형적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울어진 천장에 설치된 선형 조명은 공간의 방향성을 만들고 흐름을 극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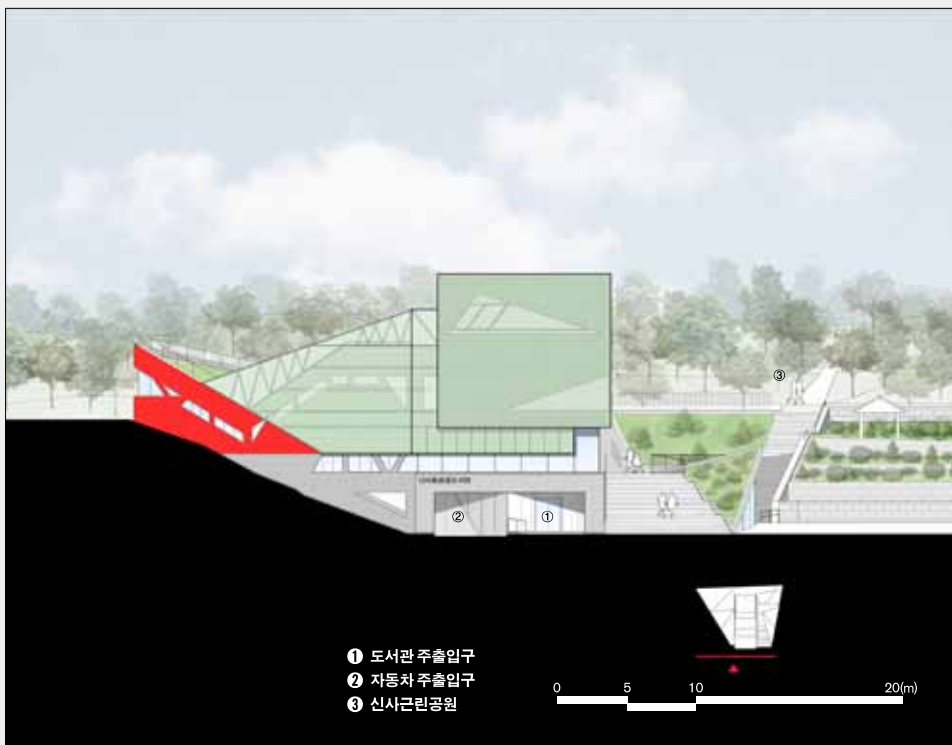
땅에 묻히거나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부분의 재료는 콘크리트로 주요 지반이 암반인 비단산과 연속성을 가진다. 상부의 자료실 및 열람을 위한 공간에는 숲의 연속이자 내부로 직사광선을 여과하는 역할을 하는 강화섬유 레진 그레이팅을 사용했다.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면으로 보이는 이 재료는 건물의 경사판에서도 사용되는



상 내숲도서관의 2층 부출입구
중 어디서든 숲으로 연결되는 동선
하 자연의 녹색을 닮기 위한 건축재료



내숲도서관 동측면도



내숲도서관 남측면도

데, 색채는 자연의 녹색을 닮으려고 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레이팅이 외부의 빛과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투과한다. 작은 부재의 조합으로 하나의 면을 형성하는 방식과도 같다.

건축을 한다는 것: 소통하고 관계하는 풍경을 만드는 것

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회와 그것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삶의 방식, 또는 공간을 매개로 한 관습화된 상호 관계성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건축은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일련의 진행 과정 속에서 장소만이 내포하고 있는 특수성의 실마리를 탐구하며 기존에 있던 유사한 프로그램의 유형을 깨고 새롭고 낯설기조차 한 공간을 품게 되는 순간 비로소 건축은 도시 속에서 활기차고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건축은 단순하되 복잡하고, 스펙터클하면서 덜 위압적이고,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가볍고, 각각 독립적이되 또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며, 흥미와 긴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기대감을 충족하거나 혹은 예상을 배반한다. 자극적인 삶의 무대가 되는 건축이다.

건축에 담고자 하는 미래의 염원이나 일상적 경험을 한 단계 초월하는 공간적 가치로 구현하는 것, 그 속에서 장소와 사람이, 사람과 사회가, 내부와 외부가, 인간과 자연이, 도시와 건축이, 과거와 현재가 만나 서로 막힘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성을 확립하고 경험의 확장을 창출하는 가능성과 퍼포먼스의 풍경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 ‘짓기’의 화두이다.

내부 지향적 동선과 상징적 대공간이라는 공공도서관의 관습적 유형에서 탈피해 건축을 매개로 ‘도시-자연-사람-지혜’가 분절없이 연속된 풍경 속에 펼쳐진다. 내숲도서관은 소통과 관계성의 건축이고, 일상 속 새로운 경험의 무대이다.



상 외부의 지형이 만들어진 내부 계단식 공간
하 소통과 관계성의 건축